

무용 텍스트로서 비평의 교육적 기능 연구*

한 헤 리**

목 차

Abstract	III. 비평 텍스트의 무용교육적 기능
I. 서론	1. 지식 담화로서의 무용 텍스트
II. 무용비평의 교육적 성격	2. 의식 교육으로서의 무용비평
1. 무용 비평의 텍스트 특성	IV. 결론
2. 무용 비평 텍스트의 지식 구조	참고문헌

Abstract

Educational feature research of criticism as a dance text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This study has two presuppositions: One is that criticism is to explore dance as conceptual frame having an intellectual structure, and the other is that dance is not the subject but the object of awareness and study. If criticism is to understand and evaluate dance, it is to discern and aware dance. Accordingly, dance criticism is the exploration on dance. In the dance education, the study on the criticism function goes beyond the modal classification if the study is based on general intellectual ability or if it is based on professional or literal arts capacity. Thu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ssify criticism between dance criticism as intellectual circles' narrative and criticism as conscious education, which was followed by the suggestion of the relation with the dance education. This study is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object and method of dance study and educ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dance criticism. And, the comparison is not for the stress of individual specialty but for the similarity and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oo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3).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3. 1. 20. 심사일: 2013. 2. 20. 게재확정일: 2013. 3. 8.

common feature. As the crisis of dance, crisis of criticism and crisis of dance education go together, criticism must cooperate with education. The field of dance education is a place to nurture appreciators having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critical viewpoint or future creators.

In the educational dance based on the theme of searching for the definition of criticism,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riticism of knowledge text and the role of dance criticism of conscious education, are as follow.

- Dance education is educating criticism existing as a dance text, which is a product of research on danc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disciplinary knowledge structure.
- Dance education involves teaching historical texts of dance and criticism is a knowledge storage place, preserving it in the form of a linguistic text on dance.
- Criticism text of the educational dance is something that can be comprehended with academic knowledge.
- Dance criticism participating in the conversation of knowledge world is knowledge text providing the actual issue on the knowledge problems of the same period.
- Criticism as a dance text is exploring dance with an inductive thinking and inferential thinking in the knowledge structure of academy and culture succeeding as the history of mankind.
- Dance criticism education, which is a knowledge text is educating on the conscious proposed by integration of cultural knowledge together with the academy which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dance.

key words: dance criticism, dance text, interdisciplinary knowledge structure, dance education, conscious education

주요어: 무용비평, 무용텍스트, 통학문적 구조, 무용교육, 의식교육

I . 서론

무용의 중요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경험하고 또, 선호하느냐는 친숙성이나 호감도에 있다가 보다는 학문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무용 텍스트¹⁾를 얼마나 많이 생성하고 있느냐에 있다. 무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직접 말을 걸지 않으며 그 어떤 담화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세계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무용은 텍스트로 지식 세계의 담화에 참여한다. 무용이 텍스트로 지식 구조에 존재하는 것은 비평을 통해서이고 무용은 결국, 비평으로 세상과 대화한다. 무용에 참여한 소수 공동체나 개인들의 생각

1) 어떠한 예술이건 그것이 소통 될 때에는 텍스트가 기초가 되며 그 텍스트가 반듯이 언어나 문자 일 필요는 없지만 결국, 그 텍스트는 언어나 문자는 물론, 예술들 간에도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intertextualité*(상호텍스트성)의 시각(한혜리, 2004:131에서 재인용).

과 취향으로 해석되고 기억되는 무용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된 무용이거나를 막론하고 무용은 비평으로 학문과 교육의 세계에 존재한다.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는 무용은 비평을 통해 다양한 학문 지식의 수평적인 구조에서 역사적인 의식을 풍요로운 텍스트로 담아낸다. 사고나 연구의 방향이 항시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는 과학과 달리 예술은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반성적 사고를 기저로 한다. 결국 무용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자, 개인적인 삶의 방식 표현으로 연구와 비평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지식 구조에서 비롯된 개념의 틀로 무용 전체를 파악하는 비평과,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취미와 편견의 무용 취미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류의 모든 존재와 행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수평적 가치 인식은, 비평의 기준이나 방법의 정당성에 시대 의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어떤 면에서건 기존의 정향지²⁾에 대한 대안의 탐색이 필요할 때 증가한다. 그리고 시대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한다. 사회학자³⁾들은 민주주의의 강화와 사회정의 강화를 시대 의식으로 다양성의 분류 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하기도하고, 철학자⁴⁾는 지식 텍스트를 읽을 때 인식의 충위를 진리의 충위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상기시키고 있다.

지식 세계의 무용 텍스트란 통합적인 감각에 의해 전진적이며 일관성 있는 과정으로 완성된다. 즉, 무용을 통학문적인 지식구조에서의 개념적 틀로 연구한 결과물이 무용 텍스트이며 무용교육은 이러한 무용 텍스트인 비평을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 무용은 인식과 연구의 대상이며,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무용은 인식이나 연구의 대상이지만 그 자체(행위나 작품)로 학문이나 교육이 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무용 텍스트 중 하나인 무용 비평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용을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용교육이라면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용을 대상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따라서 그 무용교육에서 무용은 언어 텍스트로 존재하는 비평일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 비평의 기능 연구는 무용연구가 지식에 근거한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

2) 김테환(2013:159에서 재인용, 서동욱, 기획: 2013), '정서와 의지'의 의미

3) Martello, M.(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의 내용

4) Benjamin V.의 『역사철학 테제』의 내용 (Žižek S, 1999:222에서 재인용)

의한 것이거나, 전문성 - 경험적 지식 - 이나 교양을 기초로 형성된 개인적이거나 공동체 - 이데올로기, 문화, 민족, 국가 - 적인 취향에 토대를 둔 것인가 하는 양태적 구분을 가로 지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는 무용 비평의 목적이나 방법 연구이기 보다는 학문(지식 세계)과 교육의 장에서 언어 텍스트로 존재하는 무용비평의 의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서술되는 학문 영역별, 교육 목적별로 차별화 되는 무용 비평의 목적 과 방법의 비교는 다름이나 각각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무용의 위기, 비평의 위기, 무용교육의 위기는 운명을 같이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무용교육은 비평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용교육의 현 장은 수준 높은 무용 교양과 비판적 안목을 지닌 감상자 또는 예비 창작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교육적 기반에서 진정한 무용 비평의 생산 및 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는 무용교육과 무용 비평 연구서들이 될 것이지만 주제 선정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무용 비평 교육의 새로운 지평”(2012) 이 있다.

II . 무용비평의 교육적 성격

보여지는 무용을 언어 텍스트로 변환하는 비평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담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기억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기억으로서의 무용 텍스트는 글(문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놀이와 축제로도 계승 되는데, 전승되는 무용 텍스트는 음, 색, 의식 행위 등의 요소는 물론, 각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과 독자적인 체계로 구성된 인류 문화의 역사 텍스트이다. 이러한 무용 텍스트로 무용교육은 시대 의식을 교육할 수 있다.

물리학은 자연에 관한 지식의 조직체이지만 물리학도는 물리학을 배울 뿐 자연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연과 똑 같이 예술도 그 체계적 연구, 즉 비평과 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을 배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학에 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배우다라는 타동사와 목적어로서 배우는 것은 문학비평인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문학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 말 에 때때로 느껴지는 어려움은 문학은 가르쳐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말 하자면 문학 비평만이 직접 가르쳐질 수 있는 전부이다. 문학은 연구의 주체가 아

나라 연구의 대상이다. 오히려 비평의 예술에 대한 관계는 역사의 행위에 대한 관계, 또는 철학의 지혜에 대한 관계와 같은 것이다. 즉 비평은 그 자체로는 말을 하지 않는 인간의 생산적인 힘을 언어로써 모방한 것이다(Frye, N., 1957:60).

무용교육은 무용의 역사적 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텍스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여 인류의 축적된 역사를 전승하고 있지만 비평은 무용에 대한 기억을 언어 텍스트로 보관하는 무용 지식 창고라 할 수 있다.

1. 무용 비평의 텍스트 특성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텍스트에 무용을 포함한 모든 예술이 언급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할지라도 적어도) 문화에서의 텍스트는 사실이나 현상의 현장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기억에 대한 것이라는 것. 둘째, 문화적 기억은 상징화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 어떤 방식으로든 전승(축적)되어야 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기억도 기록과는 다르다. 기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그러한 기억으로서의 예술은 지성과 감정을 균형 잡히게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여 의도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한혜리, 2004:132).

19세기의 낭만주의 발레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호감도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비평이 낭만주의 발레를 세상에 널리 알려 준 결과이다. 무용은 보여주고, 사라져 세상과 직접 대화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무용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기억을 기록한 텍스트를 통해서이다. 세상에 대해 직접 말을 걸지 않는 무용은 삶의 장식품으로 혹은 생활의 무용지물로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마약이나 진정제로 존재하였다. 무용 텍스트는 시대 의식을 기초로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기억되고 해석된다. 이러한 기억의 기록이 비평에서의 무용 텍스트임으로 비평은 교육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무용비평가의 임무라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에서 무용의 위치를 예견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평이 아니라, 이전의 무용으로 그것이 인류 지식 세계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 비평은 지식 세계의 학문적 담화이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평, 올바른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학문의 보편적 신념이 숨겨져 있다.

비평의 역사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시대는 예술이 비평을 거부한 시기이자 문명생활의 빈곤을 초래한 시기로 기록된다. 결국, “비평가가 문화교육의 개척자나 문화적 전통의 형성자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전혀 없다”(Frye, N., 1957:48).

무용 강연 자료나 가벼운 수필문 처럼 단편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개인적 취향의 감상과 평가의 글은 무용 비평이라기 보다는 무용 예술의 또 다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관 표현으로서의 무용 비평은 무용의 실용적 연구에서 착상을 얻기 때문인데, 이론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다든가 그 구조에 대한 연구의 배경이 없으므로 과학적 논리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없으므로 학문이나 교육의 담화가 될 수는 없다.

무용 전체를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용 비평이다. 즉, 비평은 행위로서의 무용을 지식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비평은 무용으로 표현되는 인간 정신의 힘을 언어로 모방한 것으로서, 무용 비평은 인간의 정신적 언어인 무용을 지식 세계의 이성 언어로 변환한 것이며 지식으로 독해한 것이다. 독해로서의 무용 비평은 자체의 지식 개념과 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비평이 구축하는 지식 구조는 교육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식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교육된(보편화 된) 지식(논리와 과학)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 교육에서의 비평 텍스트이다.

무용 비평은 인문과학의 중심 과목으로서 한편은 역사학에 접하고, 다른 한편은 철학에 접해 있다. 무용 비평이 역사학적 구조와 철학적 구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용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통합적인 지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지식 텍스트 비평의 대상이 되는 무용은 인간의 정신적 힘의 진공상태를 만들어내고, 모든 인접 학문이 무용 속에 침투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용 비평은 중심 이론이나 가설 즉, 지식이나 학문의 통합 원리를 필요로 한다.

비평이 과학의 한 영역이라면 사회과학일 것이나 그 과학적 구조의 배경이 되는 지식은 인류의 오랜 역사적 기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여 저장한 인문학일 것이다. 단지, 무용을 역사적으로 나열해 놓은 작품의 목록이 무용의 저장고라는 사고는 무용이 인류에 어떤 모습과 형태로 참여했는지를 탐구하고 제시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만약, 무용이 개별 작품 누적의 결과라면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체계적인 정신훈련을 쌓는 교육도 불가능하다.

비평이 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어떤 성질이 무용 속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비평이 과학(학문)이 되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식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적 구조에서 연구된 무용만이 새로운 비평적 발견의 원천지가 되며 비록, 더 이상 새로운 무용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원

천지로서의 임무⁵⁾를 할 것이다. 비평이란 안무자가 의식적으로 작품에 부어 넣은 것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의 내용을 그 무용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비평의 지식적 구조의 결여는 무용 연구 즉 무용의 학문적 발전의 담보와 그에 따른 무용교육의 무기력함과 직결된다. 인류의 역사만큼 축적된 지식에 근거한 과학 논리로 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간의 지식만으로 예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예술 신비주의와 다름이 없다. 예술 신비주의는 예술의 학문적 축적을 저해하고 결국, 인간 지식의 전승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용이 인간 개인의 시대적인 사회 활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지식 텍스트로 남아 전승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용비평의 교육적 기능이다.

2. 무용 비평 텍스트의 지식 구조

무용 비평 원리의 다양함은 무용 연구가 학문간을 얼마나 복잡하게 가로질러 관계를 형성하는지와 그러한 관계 맺기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생성되는 개념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설명된다. 비평에는 지식 구조에서 비롯된 개념의 틀로 무용을 탐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학문의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각기 다른 문화를 통한 전승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 직관으로 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비평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인간 누구나 가진 감성과 정서로 무용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행위 이 모두가 공존하는 것이 비평의 영역이다. 그러나 모든 비평이 가진 유사성은 모두 무용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 인지라는 것이다.

무용교육에서 개념적 틀이 없는 비평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효과로 가득한 무용작품을 선택해서, 자기만족에 젖어 그 아름다움과 효과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에서 비평을 발전시키는 첫 단계는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무용 이론을 제거하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통합된 지식 구조를 탐색하여 비평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 비평은 주변 학문의 지식 구조로 독해할 수 있는 무용 텍스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에는 생물학적 기초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런 가치들에 근거해 옳은 해석을 구축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로서 마주치게 되는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적 교환을 통해서이다(Edelman, G. 2004:154)

5) <용담검무龍澹劍舞>를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지식 틀에서 읽어내는 윤석산의 연구(2004), 채희완(2012), “통영승전무를 대상으로 한 통학문적 접근 연구” 등을 사례로 제시 할 수 있다.

무용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생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술이라는 의식 행위에서 예술로 영역이 변모되었지만 무용은 언제나 인간 정신활동의 영역에서 분류되고 있다. 현재는 종교, 사회, 학문, 교육의 영역에서 각각 다른 지식의 구조로 그 의미(목적)가 해석되어, 인류의 지식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무용은 예술적 장르와 양식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성질로 분류되어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인류의 축적된 지식 체계 안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예술의 양식적 범주 내에서의 분류하기를 통한 무용 인식은 그 기준이 이전의 무용 혹은 이전의 예술에 국한되어 존재적 가치 판단에 머물게 되기 쉬운 반면, 지식 개념의 틀로 해석되어진 비평은 인류의 정신적 행위와 그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인간 정신의 영역에서 보다 통합된 보편적 지식으로 무용을 인식하게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선행되는 것은 독해가 가능한 무용(작품) 그리고 그것을 보고, 판별하는 능력임으로 비평과 교육의 관계는 필수적인 것이다.

무용비평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교육의 장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용을 교육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무용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로서의 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본 적 없는 시대의 본적 없는 무용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지만 비평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무용이 참여했던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나누었던 담화의 내용은 전승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무용은 직관에 의해 감상하거나 개별적 취향으로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심리 해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 세계에 참여하는 무용 비평은 인간의 실천적인 삶의 역사에서 무용을 고찰하고, 언어로 정신적 행위를 모방하고 독해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해는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삶의 관심 속에서 생겨난다(Dilthey, W., 1979).

지식을 근거로 독해가 가능한 것이 무용 비평이라고 한다면 무용은, 지식의 동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쟁점이 제공될 때, 비평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증대되고 더불어 지식 세계에서 활발한 담화가 된다. 무용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고, 교육은 결국 그 시대 의식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교육에게 시대 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학문 분야가 구축한 개별적 탐구 방식으로 자연과 생물 그리고 우주와 인간을 연구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물로서의 지식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며, 그 지식의 총합이 시대 의식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시대의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식 산물들은 교육을 통해 판단되어 확산되거나 도태되는 성질 때문이다.

무용교육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되는 예술교육은 시대에 따라 교양교육 혹은 인문교육으로 그 목적과 내용을 근소하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변화하여왔다. 인문교육이 교양교육⁶⁾과 구별되는 것은 인문교육⁷⁾이 갖는 창조의 의지가 고찰의 의지보다 더 결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Ⅲ. 비평 텍스트의 무용교육적 기능

예술의 위기, 교육의 위기, 무용의 위기, 비평의 위기는 같은 맥락이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역사는 비판적 시민교육을 강조 하였고, 비판적 사고는 개개인이 각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정체성에서 비롯되며 개인적 정체성의 배경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성이 있다. 같은 측면에서 보면, 시대 의식은 변하는 것이지만 인류의 진보와 변영은 불변의 보편적 의식일 것이다. 각기 다른 생각과 상황의 모든 개인이 개인적 기회보다는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인류와 사회의 진보가 완성된다. 이러한 인류의 진보를 위한 교육은 결국 시대 의식을 교육하는 것이고 시대 의식의 변화는 삶의 지향점을 향한 인간 행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교육에서 의식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식과 교양을 단지 학습 및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의 저장고로 이용하기도 한다. 지식과 교양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격리되고 또 차별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바탕이 되는 학문이 제공하는 의식은 비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용교육은 무용을 통해 시대의 철학, 역사, 학문 그리고 예술을 통합된 지식적 구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무용 비평을 교육한다.

사회 전체가 도시화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면 욕구besoin는 - 욕망appetit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쟁conurrence에 의해서 - 수직적인 접근선을 따라 비약적으로 증대한다(Baudrillard J., 1970:88).

각각의 이념들이 동등한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교육은 어떤 길을 어떻게 제

6) 예술교육이 liberal education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7) 이러한 의미의 오늘날 전인교육은 신인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문은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교육은 스스로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한다는 이 시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과 상상력의 빈곤에서 비롯된 개인적 배타성이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으로 확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의 목적이 전문성 교육에서 전인교육, 인문교육, 교양교육으로 전환되고 예술교육이 대안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예술의 요소인 상상력이 예술교육에서 목표로 설정되고 부터이다. 교육과 예술 그리고 학문과의 트라이앵글 관계망에서 무용교육은 상상력이 교육의 목표인 예술교육의 범주 안에 있다.

무대예술로서 무용이 가진 심미적, 문화적인 다양한 면에서의 가치와 교육에서 무용의 가치를 혼동해서는 않된다. 무용은 예술교육인 것도 분명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이기도 하다(Robinson, J, 1988:53).

1. 지식 담화로서의 무용 텍스트

비평이란 인위적이고 대중의 취향은 자연스럽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통속' 예술이다. 따라서 통속 예술이란 대중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예술과 대중의 직접적 접촉의 매개가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의 수준이나 질에 대해서도 수평적 시각을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의식의 배후에는 취미에 대한 오래된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프라이(Frye, N., 1957:46)는 톨스토이를 거쳐서 자연발생적인 창조력을 가진 '민중'이라는 낭만주의 이론으로까지 유추된다고 주장한다. 19세기 후반 보들레르 Baudelaire, Charles-P. 와 오스카 와일드 Wild, O.에 의해 제창되었던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예술은, 미적인 것이 아닌 그 어떤 것 -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기타 비예술적인 표준 - 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의 예술은 그 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근본 입장이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무용은 '표현 그 자체의 표현'이라는 공식적인 이치를 비평의 규칙으로 받아들였다. 러시아 형식주의, 미국의 신비평 New Criticism이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평은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무용을 비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비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세기 비평(미국의 신비평 등)은 이러한 내재적 비평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용의 규정된 본질에 주목하고 본질 자체를 평가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은 경험을 섬세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반면, 그 경험을 단지 작품에만 한정시킨다.

비언어적이고 탈문자적인 무용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물이 아니라, 역동적 구조물로 보여지므로 늘 다른 텍스트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조직체로 존재한다. 보여지는 무용의 다가성적 이해는 무용교육의 전환을 초래했다. 무용은 더 이상 신체 기능교육이나 자기 표현교육이라는 전문교육 혹은 교양교육의 도구적 역할이 아닌, 지식 담화의 언어 텍스트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무용교육이 시대 의식 교육을 위한 지식 구조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지식 세계에서 활용을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용의 지식 세계에서 활용성은 결국, 지식 세계에서 소통성이다. 무용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실용주의 학자인 듀이(Dewey, J.)의 예술이 과학만큼이나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즉, 예술은 우리의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쉽사리 일련의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예술 인지론은 예술교육의 목표가 예술적 가치와는 다른 지식 세계에서 활용성이라는 예술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지식 소통에서 텍스트로 존재하는 무용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텍스트들이다.

무용은 움직임으로 구성되고 그 자체의 체계를 준수하면서 보여 지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어화되는 것이 텍스트이다. 무용이 텍스트인 이유는 무용이 인식의 대상이 될 때 움직임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기호와 의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 세계에서 담론이 되는 텍스트가 무용 비평인 것이다. 보여 지는 무용이 언어로 기억되고 독해되어 텍스트로 계승될 때 적용되는 코드나 규칙이 문화와 학문적 지식 구조이다. 이것이 무용이 직접적으로 지식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이유이고, 무용이 언어 텍스트로 지식 담화에 동참하는 근원이다. 즉, 무용의 언어적 인지가 비평이고 무용은 비평으로 지식 세계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체계이다.

...무용수는 춤추는 여자가 아니며 여성이 아니라 칼, 술잔, 꽃 등 우리 형태의 기본적 양상 중 하나를 요약하는 변신이며 글로 표현하기 위하여 대화적 및 묘사적인 산문으로 여러 문단이 필요한 것을 육체의 언어를 가지고 생략 또는 비약의 기적을 통하여 암시하는 일체의 문자 도구에서 해방된 시를 쓰는 것이지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allarmé, 1945:380).

지식 소통 체계에서의 무용은 비언어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예술의 공동구역에 위치한다. 무용은 문화적 혹은 사상적 메커니즘에 의해 망각되었다가 또 다른 사상적, 문화적 문맥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비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무용은 보여질뿐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비평을 통해 지

식 담화에 참석하는 무용 텍스트는 문화적 기억과 당대의 지식 틀과의 관계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은 어떤 무용을 선정하느냐 보다는 어떤 개념적 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텍스트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 대상은 문화적 반향이 되는 본성이 있으며 무용의 경우는 인간의 움직임이 텍스트적 대상이 된다(Lange, R.,1981:13-21).

무용은 지식 구조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역동적이다. 텍스트로서의 무용비평은 텍스트의 구조가 보편성을 띠수록 지식 세계에서 소통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무용 텍스트의 지식 세계에서 활용성을 위해서는 그 구조가 지식의 보편성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보편성은 학문과 문화와 관련된다.

개별적인 무용 텍스트가 지니는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전체 문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한혜리, 2004:137).

무용이 학문적 개념의 틀에서 언어적 텍스트로 환원되는 것이 비평임으로 무용교육은 비평을 통해서 완성된다. 무용은 관조하고 지각해야할 대상이고, 비평은 무용을 학문적 개념 틀에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텍스트로 변모하여 지식 세계에 존재하게 만든다. 세계를 사유한 결과로서의 무용에 공감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며, 생각의 결과인 인지로서의 무용을 개인적 취향의 감상 기준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근원과 상황을 과학적으로 추론해 내는 것이 무용 비평의 과학적 특성이고 학문적 논리이다. 결국 내제적 비평과 무용 텍스트로서의 비평은 인류 역사로 계승되고 있는 학문과 문화의 지식 구조에서 귀납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로 무용을 탐구한 것이다.

2. 의식 교육으로서의 무용비평

합리적 예술교육은 직접적 체험을 대신하고 작품에 친숙해지기 위해 오랜 시간을 버리는 대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해주며 소위 취향의 자발성이 아니라 개념과 규칙의 산물인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해준다(Bourdieu P., 1979:135).

예술교육은 예술을 교육의 수단으로 하고 예술의 가치를 교육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무용과 무용교육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존재한다.

사회를 사는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가치 있는 정신으로서의 윤리관을 필요로 한다. Robinson(1993)은, 무용은 삶에 대한 모든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식, 자제력, 즐거움 그리고 타인의 의사를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하고 발달시키기 때문에 욕구불만과 자포자기, 폭력 그리고 목적을 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치유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무용의 윤리교육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결국, 무용교육에서는 무용의 예술적, 미적 가치가 상대적인 반면, 지식 세계에서 효용성이 목적이 된다.

무용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이념⁸⁾이다. 그것은 감정이나 정서등 다른 모든 주관적 경험들이 교차하는 방식에 관한 하나의 이념이다. 그리고 모든 이념(예술이념 뿐만이 아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것은 인식론적 특질과 가치론적 특질의 통일이다. 자체내에 인식행위에 상응하는 가치정향⁹⁾을 내포하고 있는 이념은 개념, 판단, 추론과 같은 순수한 인식론적 범주들과는 구별된다. 예술적, 시적 이념이 특별히 가치 정향적 측면과 인식 정향적 측면의 상호 연관이 긴밀한 이유는, 현실의 예술적 전환에서 정서적 요소가 기능하기 때문이지만 결코, 예술 이념은 이데올로기적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용의 이념은 작품 내에 특정하게 놓여있는 주요 사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 무용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며 이 이념은 주제와 융합되어 작품 전체 구조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루고 통일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나 주요 사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용 이념은 주제 선택의 원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무용에서 주제는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념은 특정 주제를 선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작품 경향으로 확인된다. 주제의 선택은 이념적 파토스를 드러내는 행위인 반면, 이념은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며 주제가 내포한 문제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무용이 이념의 표현이라면 이념은 삶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판단, 가치평가를 내포하며 이것은 독해된 지식 텍스트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다. 무용이 한 인간의 내면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용은 “인간의 고유한 역사의 내면적 이야기로서 세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느끼며 사는가 하는 삶의 방식” (Gilson E.,1958:239-244)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용은 비언어적 메시지이다. 플라톤의 용어로 설명한다면 무용은 의지의 모사模寫이며, 비평은 개념으로 의지를 해석하고, 모사된 의

8) “이념이란 인간의 인식과 지향(의지)이다” Lenin,W. I., “Wissnschaft der Logik”, 진중권(1989) P.300에서 재인용.

9) 지향, 의지

지를 언어로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평이 무용을 언어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의 틀은 의식 교육이 제공한 지식 구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이 무용을 연구하는 학문과 다른 점은 무용 존재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학문이라면 무용교육은 지식 세계에서 효용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를 인식하고 모든 세상의 현상에 대해 그 뒤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비판적 사고가 무용교육의 목적이다. 그리고 무용교육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용을 통해 인식하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학문이라도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자발적 의지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무용비평은 통학문적 지식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용교육이 목표로 하는 비판적 사고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대의 흐름을 인식할 줄 알고 또 뒤에 가려진 요인들에 민감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무용을 대상으로 세상에 숨어있는 불균형한 힘들의 관계와 그 관계가 갖는 체계를 역사적 지식을 통해 발견하는 민감성은 무용 비평의 목적이기도 하다. 비판적 사고에서 민감성은 무용을 존재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지어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무용 인식의 과정에서 기준에 대한 의심이 비판적 사고라면 그 의심의 원인을 개인적 의식이 아닌 사회적 의식으로 탐색하는 것이 민감성이다. 비판적 사고와 민감성은 무용교육의 목적이다. 유일한 기준이나 유일한 개념적 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숨은 권위와 권력의 구조를 통해 무용을 독해 한 것이 무용 비평임으로 무용교육은 비평교육인 것이다.

무용교육에서 비평은 철학, 문학, 역사를 통해 무용을 독해한 텍스트이다. 정신의 언어인 무용을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변환하고 묘사하는 것이 무용 비평이다. 그리고 무용교육이 무용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학문과 문화 지식의 복합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의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무용교육은 지식 텍스트인 무용 비평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IV. 결론

인문학의 일부로서의 무용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의 오인된 개념들 속에서 그 본질을 위협받고 있다. 공유하는 인간경험과 문화체험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삶과 의식의 파편화가 더욱 조밀해 지는 환경에서 무용의 인문, 문화적 가치를 계발, 보존, 전승하기 위한 무용교육의 기대는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존재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은 무용뿐 만이 아니다. 사회의 숨은 체계를 읽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각이 순간적이고 단발적인 것이 아닌 지식으로 기능하려면 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감각의 결여는 인간을 유행이나 규범에 매달리게 하여 보편성에 기대어 안주하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는 감각의 결여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남겨지게 만들고 불완전한 존재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은 자율적일 수 없고 독립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무용교육에서 감각은 곧 비판적 사고의 시작이자 민감성의 근원이다. 결국 의식 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감각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민감성 교육으로 이 세가지가 무용 비평 텍스트가 의식을 표명하게 되는 요소들이다.

비판적 사고를 교육하는 무용교육은 비평과 실질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무용의 위기, 비평의 위기, 무용교육의 위기는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무용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수준 높은 교양과 비판적 안목을 지닌 감상자와 예비 창작자를 양성한다. 무용비평의 교육 기반에서만 진정한 무용과 비평의 생산 및 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무용을 지식 구조를 가진 개념의 틀로 탐구하여 언어로 제시한 것이 비평이며, 무용은 인식과 연구의 대상이지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두가지 중심 축이 전제되어 있다. 무용 비평은 무용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식 텍스트로서 무용 비평의 교육적 기능 연구는 무용 연구가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거나 전문성이나 교양을 기초로 한 취향에 토대를 둔 것인가를 넘어 지식 세계의 담화로 존재하는 무용 텍스트와 의식 교육의 장에서 무용 비평의 위치로 분류하여 무용교육에서 비평의 의미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무용 비평과 무용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다름이나 각각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무용교육에서 비평의 의미 탐색을 주제로 지식 텍스트로서의 비평과 의식 교육으로서의 무용비평의 역할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무용교육은 무용을 통학문적인 지식 구조의 개념 틀로 연구한 결과물인 무용 텍스트로 존재하는 비평을 교육하는 것이다.
- 무용교육은 무용의 역사적 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이고 비평은 무용을 언어 텍스트로 변환하여 보존한다.
- 학문적 지식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 무용교육에서의 비평 텍스트이다.

- 지식 세계의 담화에 참여하는 무용 비평은 지식의 동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쟁점이 제공되는 지식 텍스트이다.
- 무용 텍스트로서의 비평은 귀납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로 무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 지식 텍스트인 무용 비평 교육은 무용에 내재된 학문 지식과 문화 지식의 복합이 종합되어 제시되는 시대 의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서동욱(기획, 2013), **싸우는 인문학**, 반비.
- 윤석산(2004), “용담검무의 역사성과 한계성”,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제 17집**, 133-155.
- 전현주, 오율자(2012), “무용비평교육의 새로운 지평”,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1권 4호**, 361-370.
- 채희완(2012), “영남예술의 미적 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통영승전무를 대상으로한 통학문적 접근 -”,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제46집**, 7-47.
- 한혜리(2004), “무용의 예술적 범 영역성에 관한 연구-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적 접근 -”,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6집 2호**, 129-145.
- Baudrillard, J.(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mythes sesstructures*, 이상률(역,1999),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du Jugement*, 최종철(역, 2006), **구별짓기**, 새물결.
- Dilthey W.(1979),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 이한우(역, 2005:43), **체험, 표현, 이해**, 서울: 책세상.
- Edelman, G.(2004), *Wider than the sky*, 김한영(역, 2006), **너는 하늘보다 넓다**, 해나무.
- Gilson, E.(1958), *Secteure philistin*, Paris :Vrin.
- Kagan, M.(1975), *Vorlesungen zur maxisisch-leninistischen Ästhetik*, 진중권(역, 1989), **미학강의 I**, 벼리.
- Lange, R.(1981), "Semiotics and Dance", *Dance Studies, Vol. 5*.
- Mallarmé(1945), *Ballet, Œ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 Martello, M.(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Frye, N.(1957),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역,2000), **비평의 해부**, 한길사.
- Robinson, J.(1988), *L'enfant et la danse*, Paris: Auto-édité.
- Žižek, S.(1999), *The tikliss subject*, 이성민(역, 2005),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